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에 걸친 일본선교생활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교회개척을 함께 하실 개척멤버를 모집 중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다녔었으나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계신 분들, 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에 다녀보지 않았으나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또는 서울 근교에서 예배 드릴 장소도 찾고 있습니다.

강대상이 없어도, 마이크나 스피커가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저희를 위해 예배장소를 제공해주실 분이 계시다면 연락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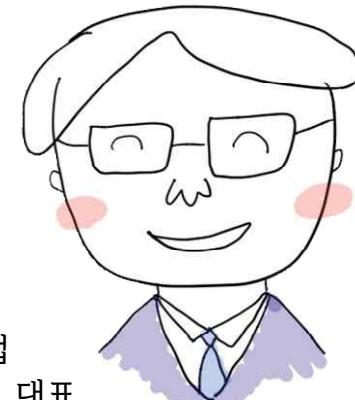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E-MAIL : mail@IRURIRA.com / hongpro@snu.ac.kr

카카오톡 ID : hongpro

홍성필 목사 소개

- 경기도 광주 생
 - 일본 도쿄에서 초·중·고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 여의도순복음교회 갈릴리 찬양대 봉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총총회신학교 졸업
 - 이루리라선교회 (www.IRURIRA.com) 대표
 - 2015~2024 일본 군마현 이카호중앙교회 (www.ikaho.kr) 목사
 - 국민일보 2019. 7.23 '오늘의 설교' (<http://kuki.IRURIRA.com>)
- * 예배·심방문의 - 카카오톡 : hongpro 메일 : mail@IRURIRA.com
 * 십일조·감사헌금·주일헌금·개척후원·선교후원



이루리라선교회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온라인 후원 : KB 국민은행 079-21-0736-251 홍성필

후원안내 : www.howon.com

대한예수교장로회 이루리라선교회 복음전도지 제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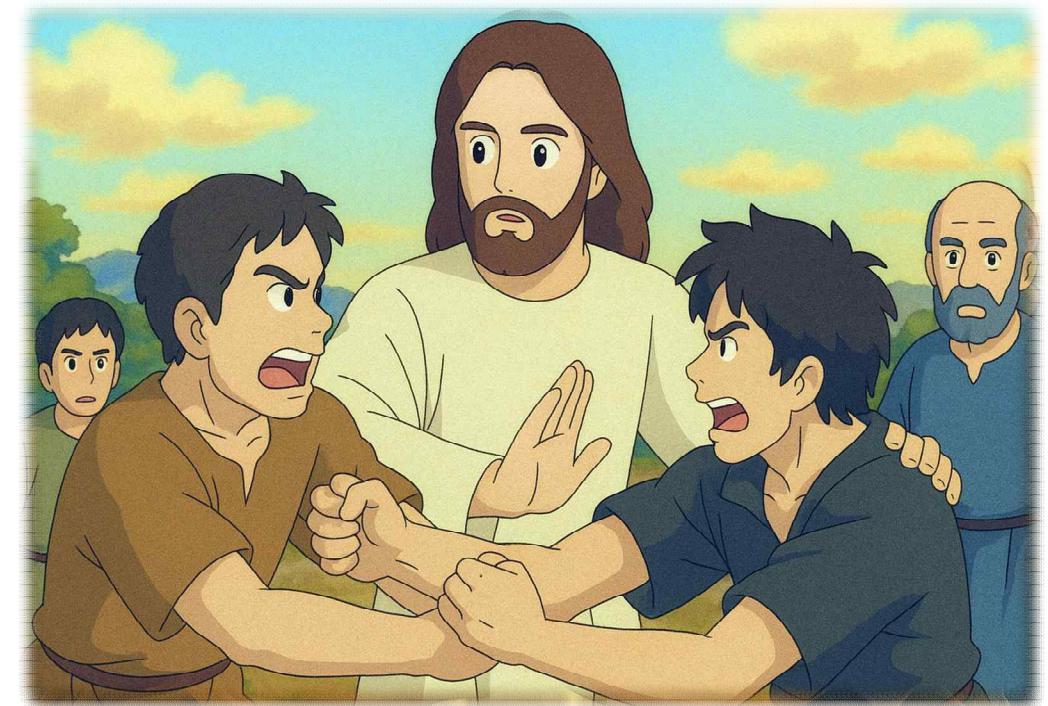


이루리라!

www.IRURIRA.com / www.IRURIRA.com

이루리라TV : www.YouTubeKR.com

홍성필 목사



믿음
FAITH 말씀
WORDS 행함
WORKS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전도지009】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설교 : 홍성필 목사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악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100이라는 죄를 지었어요. 이로 인해서 나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그대로 되갚아준다고 하면 적어도 나 또한 100이라고 하는 죄를 지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죄를 짓는 것을 기뻐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하지 말아.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대신해서 판단해주시는 하나님을, 나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판단하는 것이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기 때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진정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넘긴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힘들게 판단할 필요도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수를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판단을 다 해주시고,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신다는 것을,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분명히 벌을 받아

야 마땅한데 땅땅거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호의호식 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속이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벌을 내리실 일이 있으면 벌을 내리실 것이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회개를 해서 나한테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화목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안에는 고통이나 괴로움 대신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법에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그 사람한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유죄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이웃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판단하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생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유죄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우리 주변의 다른 이웃처럼 그가 배고파 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이 마르다고 하면 물을 주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악으로 악을 이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가 당한 악보다도 훨씬 더 큰 악을 저질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또다시 우리가 죄에 물들게 된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슬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악이 아닌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신뢰하여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